

골롬반 선교

2019년 겨울호 vol.113



중독

조성근 신부의 사제서품

아마존 시노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19년 겨울호 vol.113

편집실 Tel. 02-927-2705
E-mail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E-mail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마음을 여는 글 03 희망의 여정 김중근 도밍고 신부

특집 중독 04 회복의 길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

06 도박 중독 치유와 회복의 선구자, 백 바오로
권병휘 아우구스티노

08 어둠에서 빛으로 전요한 신부

그림 묵상 10 사람이 되어 오신 구원의 예수님
안재선 제이슨 신부

평신도선교사 12 싹 틔워 가는 대만교회의 청년들
김선희 마리아 선교사

공동의 집, 지구 14 아마존 시노드 오기백 신부

사제서품 16 조성근 제노비오의 사제서품 편집실

다시 읽는 선교잡지 18 본당 신부의 하루
안 토마스 신부 · 민 디오니시오 신부

미얀마 이야기 20 마음공부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신학원 22 춘천 가는 기차 김진욱 사도요한 신학생

선교체험 24 골롬반 젊은이 선교체험을 다녀와서
양예린 글라라 · 이지환 시몬

후원회 26 | 골롬반 소식 28



표지

9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은 골롬반회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
조성근 신부는 2008년에 평신도선교사로 남미 칠레에 파견되어 활동했는데,
그때 만났던 칠레 신자들이 새사제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이 제의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주었다.



희망의 여정



김종근 도밍고 신부 · 편집장

푸르던 나뭇잎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이어지고, 단풍은 다시 낙엽이 되어 본래의 자리인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계절이 오면, 척박한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고 열매를 달아 주면서 거름이 되는 삶을 살았던 선배 선교사들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933년에 시작한 한국에서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활동은 주로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입니다. 척박한 환경 안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이 지역은 고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 자신이 어둠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부단히 투쟁하였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상처와 닮았던 사람들 곁에서 희망을 보여 주며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앙상한 나무에서도 우리는 파릇파릇한 새싹과 아름다운 꽃 그리고 그 열매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둠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세상 안에서도 각자의 체험과 교회의 믿음 안에서 희망과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나누는 것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희망의 삶,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 곳곳에 퍼져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골롬반 선교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복의 길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1980년 사제수품. 현재 단중독사목위원회 위원장이며,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소장이다. 저서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술술술 더 이상 문제가 아니어요>, <그리운 님이어> 등이 있다.



1989년 초, 상계동성당 주임신부로 갔을 때 골룸반 회 모 물티모어 켈리 신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본당 미사 집전과 고백성사를 도와주셨던 신부님과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종 회식 자리에서 신부님께 술을 권해도 “저는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셨습니다. 그래

서 지금은 술을 안 마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신부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 신부님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교리실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는 소주와 안주를 들고 들어가서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드시라고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을 끊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모 켈리 신부님은 본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고, 극복하신 후에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모 켈리 신부님과 만남이 제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될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군종신부로 있을 때 술 문제를 갖게 되었고, 제대 후 본당사목을 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미사 집전을 하거나 술이 깨지 않아서 미사를 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함께 술 마셨던 신자가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전날 밤 술좌석에서 말다툼 끝에 제가 신자와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신자가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희미하게 떠오르는 지난밤의 일로 괴로웠고, 이를 잊기 위해 술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김옥균 주교님은 병원 치료를 받아 보라고 눈물 어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인 광주 성요한병원에 입원하였고, ‘중대한 위기의 알코올 중독자’란 판정을 받았습다. 사제직마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강했지만, 치료에 전념하여 거듭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1년여 회복의 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상계동에 있을 때, 모 켈리 신부님은 잠시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0년 전, 가을이 지나고 겨울 길목에 들어가던 날로 기억합니다. 모 켈리 신부님의 장례미사를 집전하신 김

수환 추기경께서는 “중독자들을 위하여 애쓰신 신부님이 돌아가셨으니, 누가 그들을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신부 중에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회복시켜 주고 그들이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저와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했는데, 훗날 10년쯤 지나고 치료가 끝나갈 무렵에 문득 모 켈리 신부님의 얼굴과 추기경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쳤을 때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네 마음을 묶어 두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이사야 43,18-19)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성구와 추기경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저는 김옥균 주교님께 “온전히 회복된다면 중독자를 위한 사목을 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주교님을 만났을 때,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교품을 받기 전에 했던 사회사목 체험 때, 모 켈리 신부님이 중독자들과 살았던 상계동 집에서 함께 지내셨고, 그 경험을 통하여 중독자의 삶을 알게 되었기에 저를 내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교님은 단중독 사목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알코올 사목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에 골롬반회 안성도 신부님이 강



단주 사목을 시작한 안성도 신부



모 몰티모어 켈리 신부

릉본당을 중심으로 A.A.(Alcoholics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를 시작하였고, 1982년부터는 서울에서 각 본당 중심으로 A.A 모임과 중독자 가족 모임(AL-Anon)을 결성해 나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신의학계에서도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 10년 동안 가톨릭교회는 중독자에 대한 사목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 초에 애석하게도 안성도 신부님마저 선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1999년 10월에 저는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며, 다시 주신 저의 삶을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려던 이 죄인을 부르신 하느님의 뜻이 오묘하심에 그저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며 털썩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저를 돌아봅니다. ✠

나의 회복(回復)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 허근 신부

시간의 흐름마저 잊은 고요한 밤
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 위해
간절한 기도로 밤을 지새웁니다.

삶에 지쳐 주름 잡힌 어머니 손에는
로사리오 기도가 근심으로 밤새 이어지고
아들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바람
무릎에 참기 어려운 괴명이 멎습니다.

밤잠마저 마다한 기도와 희생으로
지새던 손으로 셀 수 없는 밤들이
나의 회복이 된 동아줄입니다.

지금 용트림으로 남은 어머니의 기도
절절한 아픔으로 내 가슴을 파고들어
하늘보다 높은 어머니 사랑을 고이고이
가슴에 묻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렵니다.

도박 중독 치유와 회복의 선구자, 백 바오로

도박 중독에서 회복 중인 권병휘 아우구스티노



백 바오로 신부(가운데)가 금경축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을 때(2009년). 그의 오른쪽은 마 미카엘 신부, 맨 왼쪽이 필자

백 바오로(폴 화이트 Paul White) 신부님은 도박 중독을 죄악시, 범죄시하기만 했던 당시 한국 사회에 도박 중독을 질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도박으로 파괴된 인간성 회복의 길을 열어 도박으로 무너진 많은 가정에 평화를 되찾아 주었고, 병들어 가는 영혼을 구원한 도박 중독 치유와 회복의 사도였습니다.

골롬반회 선교사제로 1958년 사제품을 받은 백 바오로 신부님은 파견지를 발표한 날 “폴 화이트, 한국”이라 호명될 때 떨 듯이 기뻐하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최고의 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 고행의 여정인 단도박 향로에 자신을 살라서 등대를 밝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줄을 본인은 물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부님의 사목 현장은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강원도 산골이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고된 환경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며 지내는 동안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병약하게 태어난 신부님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신부님의 무의식에 내재해 있던 도박성을 충동질하였고, 힘든 마음을 풀다는 유혹에 흔들려 미군 부대에서 카드 게임 등을 하며 도박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워커힐 카지노가 생기자, 강원도에서 서울 가는 길에 자동차 핸들은 자동으로 움직여 카지노로 들어갔고, 제주도에서 사목할 때도 마치 쇠가루가 자석에 끌리듯 주변 카지노에 끌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도박 합병증을 얻고 고향 미국 오마하로 돌아가 요양하던 중, 그곳에서 단도박모임(GA: Gamblers Anonymous)과 단도박가족모임(Gam-Anon)을 알게 되어 9개월 동안 참석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백 신부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1984년 6월 13일 첫 회합을 함으로써 “한국단도박모임 및 단도박가족모임”을 창립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이 회합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모임의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 저희(단도박 모임 회원)에게 맡겨 주시며 지켜보고 격려하셨습니다. 1996년 9월 심장병 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이 모임이 뿌리를 내려 더욱더 튼튼히 자랄 수 있게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임 창립 후 1년 3개월여 동안 단도박을 잘해 오시다가 도박 중독자의 속성이 발동하여 1987년 9월에 재발하였는데, 모임을 창설한 사제가 재발했으니 모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난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숨기고 싶었겠지만, 신부님께서서는 정직하게 시인함으로써 도박 중독자는 누구나 재발할 수 있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회복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백 바오로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며 고통스러운 산고를 겪으면서 35년 전 한국에 뿌린 한알의 단도박모임과 가족모임의 씨앗이 현재 전국적으로 61개 모임으로 성장하였으며, 도박 중독에서 회복 중인 수천수만 저희의 오늘을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을 떠나신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오마하에서도 오직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셨던 백 바오로 신부님께서서는 2018년 10월 23일 고향 근교 병



단도박모임 연수를 지도하는 백 바오로 신부(1991년 12월, 라자로마을)

원에서 골룸반 신부님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귀천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좋은 것, 나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어떠한 것도 포용하는 바다의 영성, 사랑스러운 미소로 받아 주시는 할아버지 영성, 누구나 포근히 안아주는 어머니 영성, 때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는 아버지 영성, 목말라할 때 갈증을 채워 주는 생명수 영성, 씨앗이 뿌리내려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기름진 땅의 영성,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 그리고 산과 같은 영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백 신부님! 이 땅에서 도박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향기는 온 땅 신지사방에 퍼져나가고, 숨결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전요한 신부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술 마신 적 없었고, 운동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스포츠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 학교 다닐 때는 수업 후에 생맥줏집에 가서 한국 가수 노래 들으며 가끔 한 잔 정도 마시곤 했습니다. 술의 맛과 냄새를 싫어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 분위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그랬던 제가 술을 배운 건 흑산도에서 사목할 때부터입니다. 골룸반 신부들은 저녁 식사 전에 30분 정도 모여서 한잔씩 했는데, 젊은이들과 농구 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저는 그 자리에 자주 빠졌습니다. 어느 날 주임 신부님이 손님 신부에게 “우리 보좌 신부는 어른들하고 있는 것보다 학생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싫어하는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 흑산도에서 어른들의 취미는 술밖에 없었습

니다. 신자들, 조선소, 면사무소 남자들, 동네 사람들과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지만, 그러는 사이 저는 술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가톨릭 대학생회 일을 하면서 10여 년간 술 마시는 저녁을 보냈습니다.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으니 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사회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전투경찰들과 자주 언쟁했고, 정치와 사회의 상황에 대해 정의를 외친다는 핑계로 술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실수도 잦았고, 성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혼자 노력 해 봤는데도 잘 안되었습니다. 친구 신부 두 명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나서야 '나는 술 중독자'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위하여 저는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92년 3월 15일, 술을 끊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맨 처음 한 일은 A.A(단주 모임)에 참석한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신뢰하며 치유를 받고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정신을 되찾아 가는 모임으로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내일부터 안 한다." 등등 중독자들이 처음 하는 행동은 '부인'입니다. 그래서 12단계의 처음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술에 무력했으며 삶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부터 출발하면서 하느님과 다른 이에게 자신의 회복을 맡기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지요. 회복 과정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고, 행복과 치유의 삶으로 불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임은 종교 모임이 아니므로 신자가 아니어도 함께할 수 있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나누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중독자들은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심지어 반려 동물까지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병을 고치려면 온 가족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독자 가족들의 모임에는 중독자인 가족을 변화시킬 기술을 배우러 찾아온 이들이 많은데, 결국 다른 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상처와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술, 도박, 마약뿐 아니라 성·게임·음식·소비 중독 등 대단히 위험한 중독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완전히 사람 잡는 것이죠. 중독은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으로 판단하거나, 원인이 무엇이냐로 시작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당장 하던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 한 잔을 마시지 말고, 바로 단중독 모임에 나가는 것, 치유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끊고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중독 상담 전문가와 영적지도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제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그분들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A 모임뿐 아니라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혼인 재발견 프로그램 등을 하며 치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포함하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과 그 가족들은 문을 두드려 주세요.

-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02-364-1811, www.sulsul.or.kr
- **A.A(단주 모임)** ☎02-774-3797, www.aakorea.org
- **AL-ANON(단주 가족모임)** ☎02-752-1808
- **GA(단도박 모임)** ☎02-521-2141
- **Gam-Anon(단도박 가족모임)** ☎02-522-8483



사람이 되어 오신 구원의 예수님

글·그림 안재선 제이슨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으로 2015년 1월 사제품을 받고
그해 10월 한국에 파견되었다. 현재 예술사목, 평신도선교사 리더십팀,
신학원 참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제가 미술 학교 인체 드로잉 수업에서 그린
그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앉아 있는 사람 또는 남자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머물다 보면, 이 그림 속 대상을 통하여
우리 신앙, 특히 구원 역사의 의미를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을 떠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한 힘을 가진 죽지 않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형체를 지닌,
약하고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은 성별을 반영하고 성적인 몸이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다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인간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며, 주 예수님의 인간성(性)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티케라 <남자>, 2019년, 캔버스에 유채, 59.4cm×42cm

씩 트워 가는 대만교회의 청년들

김선희 마리아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14년에 대만으로 파견되어 교도소 사목을 하면서 수감 중인 청소년, 성인들을 만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대만 신주교구 청년사목 코디네이터팀 일원으로 교구의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대만에 돌아왔을 때, 신주교구의 청년사목을 담당하는 맥스 프란치스코 신부님으로부터 초대가 있었습니다. 교구 청년사목의 코디네이터팀 일원으로 골롬반회의 평신도선교사와 함께 일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맥스 신부님은 평신도선교사가 신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성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선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분입니다. 평소 주일미사에 적은 수의 청년들만이 참여하고 미사 후 별다른 활동 없이 흩어지는 모습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관심을 두고 있던 저에게 직접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에 기쁘게 응답했습니다.

교구의 청년사목 코디네이터팀으로 일을 시작하고

대만 전국청소년여름캠프에 참가한 신주교구 청소년과 담당 사제들과 함께.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는 배시현 소화데레사 선교사, 그 뒤가 김선희 마리아 선교사





가정방문을 하여 청년들과 복음나눔 모임을 했을 때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대만 가톨릭교회와 신주교구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새로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주교구는 타오위안, 서신주, 동신주, 미아오리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청년사목은 주일학교(유년부, 초등부, 중등부)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지도반, 대학부, 사회부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의 수도 적은데다 봉사자가 부족하여 이 부서들을 다 갖춘 본당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쳐서 하나의 모임만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소속되는 사회부는 특히 빈약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며 각 지역으로 흩어진 청년들이 졸업 후에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 돌아와서도 소속되어 활동할 만한 단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 청년사목팀의 동의를 얻어 사회부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나눔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본당을 방문하여 모임의 성격을 소개하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여 교구 사회부 청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교회에서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좋았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미사 후 모여서 함께 했던 복음나눔도 좋았고, 성탄절과 부활절에 초를 만들고 본당 일에 봉사했던 시간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

가 활동했던 본당은 지역 특성상 외지에서 직장을 찾아온 청년들이 많았는데, 서로 다른 청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데 모이는 그 자체로 큰 은총임을 가슴 깊이 느꼈던 체험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을 기억하며, 복음나눔 모임을 시작했지만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매번 저를 힘들게 했고, 모임을 꾸려본 경험이 부족했기에 좌절도 겪어야 했습니다. 본당마다 하나의 사회청년모임을 만들겠다는 당초 목표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지부별로 하나의 모임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났고, 여전히 우여곡절 중에 있지만 아직은 순항 중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또 때로는 내려놓으며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신주교구의 각 지역 청소년, 청년사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주님 사랑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교구, 지부, 본당에서 새로운 봉사자를 양성하고 연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사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그동안 교회 안에서 움츠려 있던 청년들의 활동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무력무력 자라 그 신앙의 뿌리도 점점 더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

아마존 시노드

편집실·오기백 신부



출처: 바티칸뉴스 Vatican News

이번 시노드에서 교회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두리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곳에서 성령께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교황은 항상 강조합니다. 시노드는 전통적으로 주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의문을 내는데, 교황은 2018년 9월 교황령〈주교들간의 일치〉를 발표하여 시노드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시노드에 참여하는 주교들이 먼저 하느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주교들이 결의문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황은 2015년에 발표한 회칙〈찬미받으소서〉에서 아마존을 공식 언급하였으며, 이번 시노드는 이 회칙의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로마에서 '아마존-교회와 완전한 생태를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범아마존 지역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아마존 시노드)가 열렸습니다.

성골롬반회 페루지부의 피터 휴스 신부는 가톨릭 사회교리 전문 신학자 자격으로 이번 시노드에 초대받았습니다. 피터 신부가 골롬반회원들에게 동영상으로 나눈 소감을 오기백 신부가 정리하였습니다.



은 2018년 1월 페루를 사목 방문하였을 때, 아마존 지역에 가서 토착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노드를 선언했습니다. 선언 이후 아마존 지역에 속한 9개 나라(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 교회 대표들은 교구와 지구 모임을 통해서 아마존의 현실을 논의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신자들 약 87,000명이 참여했고, 그런 모임을 토대로 시노드 기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주제는 아마존 지역 생태 보존과 토착민 터전 및 문화 보호, 지역 복음화였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광산·석유 산업 개발과 대규모 농경지 확장을 위하여 밀림을 파괴하고, 그곳에 사는 토착민을 쫓아내며 그들의 토지와 문화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착민의 사목적 배려 또한 너무 부족합니다.



로마에서 열린 아마존 시노드에 참석했던 콜롬반회 피터 휴스 신부(왼쪽)와 브라질 아마존 토착민과 활동가

로마 시노드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280명이었습니다. 아마존 지역 모든 교구장, 각 대륙과 바티칸 대표들 등 180명 주교와 추기경이 참석하였으며, 아마존 토착민들과 그곳에서 그들과 활동하는 수도자들도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외 여러 분야별(기후변화, 밀림, 신학, 지속가능개발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도 그중 한 분입니다.

시노드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시노드에 참석한 이들에게 이슈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을 비롯하여 콩고와 앙골라,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계속해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중고등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운동을 하는 모습 등입니다. 세계가 고민하는 것과 시대의 징표를 읽고 가톨릭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노드에서 창조신학이 강조되었고 그 관점에서 바라본 하느님은 생명과 육화의 하느님입니다. 자

연, 문화, 역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공동체는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아마존 지역에 새로운 사도직-결혼한 남성들에게 품을 주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인 여성들을 위한-을 마련하고, 전례는 토착민 문화와 전통에 따라 그들의 삶에 맞게 표현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이들은 아마존 토착민들과 여성들이었습니다. 참석한 주교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생태입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는 모든 피조물은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노드는 3주만 하고 끝나는 회의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의 결의문을 받았고, 올해 안에 그에 대한 세계교회를 위한 '교황권고'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자연의 파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시노드는 과정이며 그 내용을 실천하는 일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



조성근 제노비오의 사제서품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1요한 3,18)





성골롬반의방선교회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의 사제서품식이 9월 21일 광주대교구 염주동성당에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의 주례,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와 옥현진 시몬 주교,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새사제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은총과 사랑을 많은 이와 나누면서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본당 신부의 하루

안 토마스(Thomas Moran, 1920~1976) 신부



안 토마스 신부가 목포 산정동성당에 있었을 때(1953년 4월 12일)

▶**새벽 6시** 61세 김 바오로의 장례미사. 그는 6일 전에 세례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신자인 아내 브리짓다는 한 달 전부터 바오로에게 교리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레지오 단원들이 그를 방문하여 도와주었다. 자녀들은 나에게 고맙다며 나중에 입교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통 있는 일이다. 천주교 장례는 비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나는 미사에 참석한 비신자들

을 위해 생명과 죽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하였고 그들은 귀 기울였다. 그중 몇 명은 틀림없이 다음 주 일미사에 나올 것이고, 예비자 교리도 들을 것이다.

▶**아침 8시 30분** 똑똑. 노크 소리가 부드러운 걸 보니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 김 테레사는 옆집 사람들이 굶고 있다고 전했다. 아빠는 군대에

가 있고, 아이 넷을 혼자 키우는 엄마가 출산을 했는데, 데레사가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나는 가톨릭 구제회를 통해 그 가족을 도울 예정이다.

▶**아침 9시** 신자 250명이 나오는 공소(지금의 광천동 성당)의 전교회장 박 방지거가 와서 공소에 성체를 모시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미사가 있는 공소에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한 교황(성 요한 23세)에게 감사한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광천동에 켜진 감실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낮 12시**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한 교리공부반의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약 400명이 왔다.

▶**낮 1시 30분** 키 큰 젊은 남자가 인사를 했다. 수원에서 온 대학생 배 암브로시오인데 광주에 온 지 2주 되었다고 했다. 그동안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워했다. 영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랬다며 “신부님, 이해하시지요?”라고 물었다. 물론 잘 이해할 수 있다. 새 신자들이 미사, 고백성사,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까지 레지오 단원들이 돌봐주어야 한다.

▶**낮 3시** 열심한 레지오 단원인 박 다리아가 소녀 둘을 데리고 왔다. 이들은 신자였으나 엄마가 죽은 후 외교인 어머니와 살면서 신앙을 포기했다고 했다. 소녀들은 거의 다 잊어버린 기도문을 다시 배우고, 주일부터 미사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다리아가 돌보고 하느님 께서 도와주시니 그들은 잘될 것이다.

▶**낮 5시** 김 방지거와 최 요셉이 찾아왔다. 방지거는 대신학생이고 방학이라 집에 와있다. 그는 9년 전에 개신교에서 개종하고 온 가족을 개종시켰다. 3년 후에 신품을 받을 것이다(편집자 주: 광주대교구 원로사제 김성용 프란치스코 신부). 그는 대여섯 명 아이들에게 미사 복사 훈련을 시켜도 괜찮은지 내게 물었다. 어찌 말릴 수 있겠는가? 서울에 있는 예수회 대학교 학생인 최 요셉은 매우 똑똑한 청년이고 또 몹시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학장에게 제출할 장학금 추천서를 써 주었다.

▶**밤 9시** 레지오 화합 모임이 9시에 끝났다. 성당 문을 걸고 들어와 연탄난로 앞에 앉아 좀 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드디어 잘 시간이 되었다. ✠

안 토마스 신부가 광주 북동성당 주임으로 있을 때(1958~1961) 쓴 글입니다. 안 신부는 하루종일 부지런히 바쁘게 일했습니다. 1948년에 와서 제주 중앙주교좌, 목포 산정동, 함평, 광주 북동 등에서 본당사목을 하면서 공소도 많이 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레지오 마리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요한 신부가 레지오를 한국에 도입하고 산정동성당에서 최초로 시작했을 때, 안 토마스 신부도 그 시작을 함께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지오 단원들은 예비자와 쉬는 교우를 찾아내어 교회로 데리고 왔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보면서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 토마스 신부가 광주 호남동에 계실 때, 저는 근처 방림동에 발령받았는데, 저에게도 레지오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민 디오니시오 신부 해설



마음공부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5년에 미얀마로 파견되어 미치나 교구 성 패트릭 성당에서 사목하였으며, 현재는 미치나 교구청에서 가정사목국과 소공동체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는 크고 작은 불교 사원이 수만 개가 넘을 정도여서 어느 지역을 가든 금빛 사원과 수많은 스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얀마에 살고 있는 저도 불교문화에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마음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다스리고 깨닫는 것은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마 대사는 “마음, 마음, 마음이며,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웅졸해지면 바늘 하나 꽃을 자리가 없으니...” 또한, 석가모니는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때에는 천국을 거닐다가도 한순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 주고 싶고, 좋은 말을 해 주고 싶는데 한번 틀어진 마음은 굳게 닫힌 철문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미얀마 북쪽 끝에 자리한 미치나 교구에서 가정사목국과 소공동체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



혼배성사를 주례한 후 미얀마 전통옷을 입은 신랑 신부와 함께

람들은 거의 대가족을 이루며 삽니다. 적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열다섯 명 넘는 대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조부모, 이모, 삼촌, 친척들까지 함께 사는 집이 많습니다. 길보기에 가족 중심적이고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말처럼 이들도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저 또한 저의 삶 안에서 현실을 마주 보며 다양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찰하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마음공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교육,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혼인 강좌, 가정폭력, 중독, 건강한 가정 등등 다양한 주제별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과 놀이치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르려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삶은 그 두 마음 사이에서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 걱정, 취직 걱정, 자녀 걱정, 사업 문제, 건강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은 온 세상을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현재의 ‘이것’보다는 미래의 ‘저것’, 내 것보다는 남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제대로 된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마음은 우리를 시기와 악에서 구할 것이고,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안에서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만이 아니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죄인과 성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사람이고, 성인은 잘못을 곧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회개한 삶을 사



유아세례를 하고 있는 필자

5년 전 미안마로 발령났을 때, 사실 제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가야 하지?”라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일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얻든지 마음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의 체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이 차이에서 삶과 죽음, 구원과 절망이 비롯됩니다.

마음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넉넉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도 가지시길 하느님께 청합니다. ✠

춘천 가는 기차

김진욱 사도요한 신학생

골롬반회 신학원 성당 입구에는 세계 곳곳 선교지에서 순교한 골롬반 선교사들, 한국전쟁 때 순교한 일곱 분 신부님들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습니다. 이 중 몇 분은 강원도 춘천 성직자묘소에 안장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순교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마침 신학원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이 함께 그분들이 활동하고 묻히셨던 춘천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양로성당과 죽림동성당을 방문하기 위하여 저희는 청량리역에서 청춘열차를 타고 한 시간쯤 걸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비탈길 위에 위치한 소양로성당은 생각보다 아담하였습니다. 그곳 김현준 올리오 주임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골롬반 선교사들과 인연이 많다고 하시며 저

희를 반갑게 맞아 주시고, 소양로성당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현재 모습의 소양로성당은 3대 주임인 골롬반회 제임스 버클리 신부님이 전쟁순교자 고 안토니오 신부님을 기리고자 1956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고 신부님은 1938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다음 해에 한국에 도착하여 강릉(현 임당동성당) 성당 보좌와 횡성성당 주임을 거쳐 1950년 소양로성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고 안토니오 신부님은 피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목자로서 양들 곁을 지키기 위하여 본당을 떠나지 않았고 평소처럼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과 저녁기도를 바쳤습니다. 폭격이 심해지자 함께 있던 복사와 신자들이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권고하였고, 자신은 본당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

소양로성당의 살신성인 표지석 앞에서
(나무 앞은 김현준 올리오 신부, 맨 왼쪽이 필자)





춘천교구 소양로성당(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61호)

고 합니다. 전황은 더욱 나빠졌고 6월 27일 오후, 신부님은 복사였던 김경호 가브리엘 교리교사와 함께 죽림동성당으로 가던 중 인민군의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인민군은 신부님을 밧줄로 묶어 끌고 가다가 고 신부님을 먼저 쏘고 다시 두 발을 더 쏘았습니다. 총을 맞은 신부님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함께 있던 김경호 가브리엘 교리교사는 신부님이 총을 맞으면서 그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 안토니오 신부님은 한국전쟁 당시 춘천교구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그때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소양로성당은 반원형 구조로 지어졌고, 제대를 중심으로 신자석이 부채꼴로 배열되어 있어 교우와 사제가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큰 성당들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성전 안을 둘러보던 중에 만난 복사단 어린이들, 앞마당에 꽃들과 함께 잘 정돈된 살신성인 표지석 그리고 전쟁순교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등 성당 곳곳의 풍경을 보며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자분들께서 고 안토니오 신부님을 기리고 그분의 마음을 닦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방문한 곳은 죽림동성당입니다. 이곳 또한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곳으로 지금의

성전은 1956년에 세워졌습니다. 중앙에 종탑이 있는 석조 건물 성당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웠습니다. 성당 뒤편에 성직자 묘소가 있는데, 고 안토니오 신부님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때 순교한 일곱 분의 사제들이 모셔져 있습니다(골롬반회 손 프란치스코·라 파트리치오·진 야고보, 춘천교구 김교명 베네딕토·백웅만 다마소·이광재 티모테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북한군에 체포되어 ‘죽음의 행진’을 겪은 후 기적적으로 돌아오셨던 구인란 토마스 주교님의 묘와 2대 교구장 박 토마스 주교님의 기묘, 임 요한 신부님, 공 토마스 신부님의 묘도 있습니다. 묘소에서 미사를 드리는 동안, 마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듯 바람도 햇살도 참 좋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신부님들이 고향을 떠나 떠나 먼 한국에 와서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열정적으로 사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신부님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앙 체험이 있었고, 당신들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신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춘천 여행은 선교사제를 꿈꾸는 저희 신학생들에게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롬반 젊은이 선교체험을 다녀와서

지난여름(8월 1일~6일), 한국지부가 마련한 <젊은이 선교체험> 프로그램이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 17명은 대만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동행하며, 다양

한 문화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 골롬반 선교 영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한 젊은이들이 보내온 체험 후기 중에서 두 명의 글을 나눕니다.

원주민 마을의 용안성당에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양예린 글라라

원주민 마을이 있는 타이안산으로 가는 길, 산을 오르는 동안 내 마음도 기대감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처음 도착한 쓰린성당의 외관과 제대의 예수님 모습에서 원주민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원주민 출신 선교사님과 한국인 배시현 선교사님이 참가자들을 밝은 미소로 맞아주고 원주민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대만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 설명을 들은 뒤, 조금 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용안성당으로 갔다. 그곳 신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차려주셨다. 왁자지껄한 동네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냈다. 밤이 되자, 우리는 홈스테이 가정으로 흩어졌다. 나와 친구들은 우리에게 방을 내주신 할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이동하였다. 신난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별을 보고 ‘우와~!!’하면서 연신 감탄했

데, 그 벅차오름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우리를 위하여 파티를 준비해 주었고, 어디선가 모인 대가족의 만찬에 우리는 또 한 번 초대되었다. 간단한 영어 단어만으로 대화하였지만, 눈빛으로 주고받던 마음의 대화는 서로를 연결해 주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짧아 아쉬웠던 홈스테이에서의 하루 밤이었다.

이튿날, 할머니께서 해주신 아침밥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다음 용안성당으로 갔다. 매년 8월 첫째 주일은 ‘원주민의 날’이라 하여 다른 부족과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 참가자들도 초대되었기 때문이다. 원주민으로 살면서 겪었을 고통과 슬픔마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며, 그분들에게 배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지환 시몬

2005년에 필리핀으로 첫 선교체험을 다녀온 후 14년 만에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행을 떠난다는 가벼운 혹은 안이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첫날과 둘째 날에는 ‘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터우편 성당에 도착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주임신부님을 보고 ‘어? 낮이 익는 신부님인데, 어디서 만났지?’ 하며 성당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기억이 떠올랐다.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님, 14년 전 같이 필리핀으로 선교체험 갔었던 대학생 형이 지금은 선교사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힘들었던 마음이 한순간 사라질 만큼 반가웠고, 모든 일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골롬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성가정 특

수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기억에 남았다. 이어서 우리는 신주교구 주교좌 성당으로 이동했다. 성당에 도착하자 신주교구의 리크미엔 주교님께서 입구에서부터 노래로 맞이해 주셨다. 주교님을 가까이 만난다는 것도 소중한 경험인데 너무 환대해 주셔서 귀한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귀국한 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첫날과 둘째 날에 그저 끌려다니기만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동하고 떨림과 설렘이 생겼는데, 처음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선교체험에서 보고, 참여했던 모든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서로 배우고 마음에 새겼던 것이 큰 자양분이 될 것 같다. ✠

후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실제 기부자(예금주)의 이름으로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을 요청하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항목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등록이 안 된 회원은 후원회로 연락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직접 수령을 요청하신 회원에게는 12월 후원회비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영수증을 원하는 회원은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해 주세요. 기존 발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발급됩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CMS 자동이체의 신청 및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19년 12월

~

2020년 3월

	12월	1월	2월	3월	장 소	문 의
서울	6일	3일	7일	6일	돈암동 골롬반본부	02-929-2977
인천	10일	14일	11일	10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1일	-	12일	11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3일	10일	14일	13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6일	23일	27일	26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	28일	25일	24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	29일	26일	25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	30일	27일	26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	31일	28일	27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2일	-	-	12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8일	15일	19일	18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21일	-	17일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17일	-	18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12월 목포, 순천, 전주, 광주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 1월 원주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후원회 4월 3일 십자가의 길(돈암동 골롬반본부 정원)
5월 8일 야외 미사(장소 미정)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제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6,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교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삼양주민연대 설립 20주년

골롬반회 안광훈 로벨도 신부가 몸담고 있는 삼양주민연대의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9월 27일, 서울대교구 송천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삼양동(구 미아 6동)의 주민들은 철거, 실업, 빈곤 등 해결을 위해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였고, 1999년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광훈 신부는 1992년부터 삼양동 주민으로 살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날 삼양주민연대는 성공회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지부장 임영준 에이몬 신부와 안광훈 신부(오른쪽)

한자리에 모인 역대 신학원장

한국지부 역대 신학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현 신학원장 오기백 다니엘 신부, 장영민 레이문도 신부, 초대 신학원장 안광훈 로벨도 신부, 양창우 요셉 신부, 배민수 켈빈 신부,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현 부원장 주다두 제노비오 신부입니다. 지난 9월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 사제서품식 참석을 위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장영민 신부와 배민수 신부는 고향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 신학원은 1985년에 시작해 1993년 첫 한국인 회원을 배출한 이후 올해까지 한국인 골롬반 사제 16명을 양성했습니다.



2019년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를 위한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끈 말린 힉슨 수녀(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사진 가운데)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 생활을 정리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가톨릭 해외선교 사교육협의회와 골롬반회는 귀국한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년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미비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선교했던 평신도, 수도자 여섯 명이 참가했습니다.



골롬반회 설립 왕십리성당 60주년 기념미사

서울대교구 왕십리본당이 설립 60주년을 맞아 11월 10일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왕십리 성당은 1959년 골롬반회가 서울에 지은 두 번째 성당으로 1973년 교구로 이양되기 전까지 초대 주임故 지 벨라도 신부를 비롯하여 구 요셉 신부, 조 파트리치오 신부 등 일곱 명의 골롬반 사제들이 사목한 본당입니다. 이날 미사에 오기백 신부가 참석하여 골롬반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왕십리성당 신자들, 역대 사제들과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 골롬반 심포지엄

11월 15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종교 안의 젠더와 권위-종교 전통에서 가르쳐온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하였습니다. 유정원 종교학 박사의 사회, 전문가 패널의 발표, 참가자들의 질문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목사 최순양 협성대 교수가 '개신교 전통과 교회 속에서 강화된 여성성', 부부인 무녀 정순덕 선생과 김동규 서강대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무교 전통에서 경험된 여신의 성격과 단골 관계',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 교수는 '현대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 강영욱 서강대 교수가 '천주교 전통에서 지향하는 여성의 권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연신 엘리사벳 선교사 25주기 추모미사

11월 2일, 골롬반 신학원 성당에서 안재선 제이슨 신부의 주례로 임연신 엘리사벳 선교사 선종 25주기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그의 부모와 형제 및 골롬반 선교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1994년 피지에 파견되었던 임연신 평신도선교사는 극빈층 거주 마을에서 활동하던 중 풍토병인 급성간염으로 그해 11월 4일, 향년 23세로 선종하였습니다. 장례는 피지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고 피지 수바의 나시누 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회 연례피정

11월 1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서울후원회 연례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후원회 담당 양창우 요셉 신부가 피정을 이끌었으며, 일상 안에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함께하여 더욱 풍요로웠습니다. 10월 셋째 주에는 목포 대성동성당, 순천 저전동성당, 전주 덕진성당, 광주 골롬반회관에서 서로 같은 내용으로 연례피정이 있었습니다. 골롬반 후원회는 지역별로 매달 월례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울후원회 연례피정을 마치고 본부 정원에서

2020년 <골롬반 성인과 함께하는 선교여행> 참가자 모집

한국지부는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다양한 선교 현장으로 초대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찾도록 돕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 만19세~40세 남녀, 선착순 10명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국내 한국인과 외국인
- 때** 2020년 4월 8일(수) ~ 4월 21일(화), 2주간
- 내용** 제주·광주·대전·서울·DMZ 일대, JPIC와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등
(장소 일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비** 40만 원
- 신청** 홈페이지(www.columban.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korsim@columban.or.kr 접수(2월 말까지)
- 문의** 02) 927-2705





선종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선교했던 네 분의 사제가 선종하였습니다.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며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던 분들

입니다. 착한목자의 삶을 완수하고 하느님 품에 돌아간 선교사제들의 삶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권 바드리시오 신부
Patrick O'Connor

9월 28일 아일랜드에서 선종(향년 84세). 아일랜드 웨스포드 출생. 1958년 사제서품. 원주교구 형성·용소막, 서울대교구 도봉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으며, 춘천교구장 구인란 토마스 주교의 비서를 지낸 바 있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호주, 영국에서도 일했습니다.



심 굴리엘모 신부
William Schmitt

10월 10일 미국에서 선종(향년 77세). 미국 뉴욕 출생. 1968년 사제서품. 인천교구 소사, 원주교구 고한(사북), 광주대교구 강진, 부산교구 반여동 등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으며 1985년 칠레로 파견되었고, 미국에 가서 남미 출신 이민자 본당에서 사목하였습니다.



명 프란치스코 신부
Francis Mannion

10월 18일 아일랜드에서 선종(향년 92세). 아일랜드 골웨이 출생. 1952년 사제서품. 춘천교구 강릉 임당동, 서울대교구 돈암동·왕십리, 수원교구 성남 단대동 등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신설 본당 개척 및 선교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지부로 파견되어 한인 교포사목의 초석을 다진 분이기도 합니다.



석콜롬 신부
Colm Murphy

10월 20일 아일랜드에서 선종(향년 88세).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1954년 사제서품. 미얀마에서 추방당한 후 한국으로 파견되어 원주교구 학성동·단구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원주교구에서 일하며 최초로 가톨릭 방송을 시작하여 매스컴을 통한 선교의 장을 개척하였습니다. 국제가톨릭미디어조직(UNDA) 사무총장으로도 일했습니다.

선교사들의 활동, 인터뷰, 강론, 해외선교 자료 등 동영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롬반TV를 검색해 주세요.



YouTube

구독! 좋아요!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골롬반TV





피지에서 활동하는 정의균 가물로 신부가 신학생 시절에 함께 살았던 가정을 찾아가서 집수리를 도왔다.
기계 장비 없이 작은 도구로만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여서 즐겁게 일했다고 한다.(피지 바누아레부 섬 까로까로 마을)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2) 929-4841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율리엤타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신부 /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